

< 2025년 7,8월에 드리는 말라위 선교편지 >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이곳 말라위는 매번 선교편지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시 시작된 유류파동과 설탕파동 그리고 시멘트 파동 과 자재파동 아울러 LPG 가스 도 6개월째 풀리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 에어 가스도 외화가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의 처방약도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어제는 하루종일 인터넷마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16일에 있게 되는 대선에 19명이 출마하여 완전히 Chaos(혼돈) 그자체입니다.



도둑들은 여기저기 들끓고 살인사건도 아직 계류중인 건만해도 106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이렇게 변해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모든 게 민생현안인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국가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 10초만 빨리 갔더라면

분다산 근처 빌리지를 우물세러모니를 갔다오다가 바로 앞에서 달려 오는 미니버스가 갑자기 토네이도에 휩싸인 차처럼 차도로 위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박고 전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차는 미리 멈추어 사고를 면했고 사고차에 탄 4명의 손님들이 중경상을 입고 신음을 하고 있어 매니저인 솔로몬이 4명을 구출하여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신고 중간에 검문하고 있는 경찰에 넘기고 다른 환자들은 말라위 카뮤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정말로 아찔한 것은 우리 트럭에 타고 있던 우리 교회 찬양대 15명과 솔로몬 및 나자신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뻔 하였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눈이 좋고 젊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는 순간입니다. 이 사고로부터 위험을 막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바위산마을에서 우물파기



코로나 이후부터는 우물을 파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2-3백만과차 하였던 가격이 치솟아 7-8백만과차(지역에 따라서 9-10백만과차도 함)로 올라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후원자로부터 우물후원이 들어와서 평소 우물이 필요한 바위산 근처에 있는 빌리지에 우물을 파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물회사에서 대형 중기가 달린 대형트럭2대를 우물을 파기 위해 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차주위로 몰려 들었습니다.

가뜩 기대를 가지고 우물 굴착을 시작하였지만 첫 시도는 그대로 실망이 되었습니다.

35미터까지 파들어갔지만 물한방울을 얻지 못하고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두번째 시도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시도도 실패에 들어가자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LDM 멤버 몇 명과 함께 빌리지 주민들 모두 나오라고 하여 우물현장에서 그대로 흠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세번째에는 물이 펄펄 쏟아지는 야곱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근처에 분다 교회를 짓기로 기도하였습니다.

그후 우물기념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축복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생명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도둑이 극성스러워 주님께서 이 우물과 빌리지 사람들을 지켜 주셔서 생명수 되신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사무엘 장례식



우리 교인 중에 사무엘이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휠체어를 탄 사무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하여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와 각종 질병으로 죽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죽었느냐고 물었더니 천식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전에도 기도회에도 나오고 지난 주일에도 참석 했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 인생 무상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위원회를 결성하고 장례식 예배 설교를 현지언어로 내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모든 추장들을 비롯하여 조문객이 거의 2000여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장하는 데 거의 3미터 이상을 파서 관을 묻기에 왜 이렇게 깊게 파느냐고 여쭙었더니 관(25-45만원)을 훔쳐 간다고 하여 도난 방지를 위해 그렇게 깊게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라위에서는 장례식은 유가족을 제외하고는 동네 축제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물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해먹고 이야기하면서 즐깁니다. 그래서 장례식기 간에는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장례식이 있는 집에서 함께 놀게 됩니다.

평소에도 말라위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한국이나 캐나다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므로 짧은 인생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스며들어 각자의 인생은 물론 사회가 변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Youth Ministry



여러가지 사역 중에서 많은 기대를 하는 사역이 청소년 사역입니다. 이제는 목회자 사역도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정신적 신앙적 지도계층인 목회자 계층이 변해야 하는데 속임과 거짓과 심지어는 도둑질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들 제자훈련은 점점 사역의 집중도가 떨어 지고 있습니다.

항상 Youth Ministry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과자나 계란을 쉽게 먹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먹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한국에서 힘들게 가지고 온 스마트폰도 주고 심지어 장학금도 전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AREA 36에서 온 20여명의 학생들이 두번씩이나 무단 결근하고 지각도 너무 잦은데다 노방전도 훈련을 거부하여 Youth 들 분위기가 흐려지고 제자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징후가 보여 20여명 전원

을 제자훈련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여명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컴퓨터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시켰고 많은 훈련비용이 나갔지만 새롭게 Youth Ministry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5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Full Scholarship 신학생들을 키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 젊은 목회자들을 상대로 키우고자 합니다.

- 옥수수 나눔



이번에 한국의 함께oo교회의 후원에 힘입어 1,2차 우파나눔(옥수수 가루)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해보다도 우파나눔과 감바 및 비스킷을 줄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교인들과 빌리지 현지인들이 우파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선교사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집짓기 사역을 하던 중 말라위에 시멘트 ,자재 및 휘발유 3대 파동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멈춰 버릴수 밖에 없는 상심한 마음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선거의 영향인지 외화 부족 때문인지 생활전반에 걸쳐 경제가 마비된 듯한 느낌이 물려옵니다.

옥수수가격도 한달만에 급격히 폭등하여 그래도 재고가 있을 때 구입하자고 해서 오늘도 급히 옥수수 공장으로 도매상으로 시장으로 팀들이 뛰고 있습니다.

말라위 경제와 정치를 주님께서 안정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 종합사역과 단기선교



이번에 2년만에 파송교회에서 단기선교팀7명이 다녀 갔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동시에 유치원사역, 컴퓨터사역, Youth Ministry 사역, 및 재봉사역을 팀들이 한두명씩 나누어서 하게 되었다. 다소 사역하느라 힘들기도 하였지만 센터안에서 일사분란하게 사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십년의 기도제목이었던 어린이 놀이터를 큰빛교회 선교국과 단기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져 참으로 기쁩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이번에 단기선교팀으로 오셔서 사역해주신 정목사님과 오장로님 그리고 두분의 권사님과 민규형제님과 두명의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여러모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께서 그 노고와 후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종합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역이 끝난후 사탄의 방해로 아내와 제가 많이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회복중에 있습니다. 샬롬

### \*\*\*기도제목 \*\*\*

1. 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여 현지인들의 폭동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와 각 단체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2. 지금 7,8월에 릴롱웨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Youth Ministry Camp를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명 장학금 지급계획)
3. 현재 진행중인 새마을 운동사역이 자재 및 휘발유 파동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진행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사륜구동 자동차 구입의 재정을 허락하셔서 운송과 옥수수구제를 할 수 있도록 빌리지에 갈 수 있는 손발이 되게 하옵소서

5.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공지사항**

1. 많은 분들이 본인의 후원구좌를 요청하여 부득불 게재합니다.

Keb하나은행 303-04-00004-887 예금주: GMP민경화

기업은행 IBK 630-011647-01-010 민경화

2. **2025년부터는 선교편지를 2개월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